

# 속·朝鮮通信使

## A Contemporary Sequel for the Joseon - Korean diplomatic expeditions

### 続・朝鮮通信使 2011 春

日程 2011.4/28-5/8 ソウル～釜山

### 続・朝鮮通信使 2010

日程 2010.8/6-8/31 ソウル～新潟

2011.4/28-5/1  
2010.8/6  
ソウル  
서울/Seoul

2011.4/29  
キョンギドウ/京畿道  
경기도/Gyeonggi-do

2011.5/1  
인천/仁川  
인cheon

2011.5/2  
안동/安東  
안동/Andong

2011.5/3  
대구/大邱  
대구/Daegu

2011.5/4  
경주/慶州  
경주/Gyeongju

2011.5/5  
울산/蔚山  
울산/Ulsan

2011.5/5-8  
2010.8/7-8  
부산/釜山  
부산/Busan

2010.8/12  
대마도 / Tsushima  
대마도/Tsushima

2010.8/12  
이키/Iki  
이키/Iki

2010.8/13  
우베/Ube  
우베/Ube

2010.8/12  
시모노세키/Shimonoseki  
시모노세키/Shimonoseki

2010.8/14  
우와세키/  
kaminoseki

2010.8/14  
시모카마가리도/  
Shimokamagari

2010.8/15  
이마바리/Imabari

2010.8/16  
도모노우라  
Dannoura

2010.8/22  
우시마도/Ushimado  
우시마도/Ushimado

2010.8/23  
비젠/Bizen

2010.8/23  
무로즈/Murotsu

2010.8/23  
고베/Kobe

2010.8/24  
오사카/Osaka

2010.8/17-21  
瀬戸内国際芸術祭2010  
Setouchi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0

2010.8/29-30  
越後妻有  
에치고즈마리  
Echigo-tsumari

2010.8/26-28  
横浜 (BankART, 他)  
요코하마/Yokohama

2010.8/25  
名古屋 (愛知トリエンナーレ)  
나고야/Nagoya

### 続・朝鮮通信使 2011 春

昨年夏に主に瀬戸内を中心に巡った「続・朝鮮通信使」の第二弾。今年春のツアー(4.28~5.8)は、釜山に朝鮮通信使の博物館が開館したお祝いも含めて、「続・朝鮮通信使研究会」のメンバー10~15名でソウル(インチョン、キョンギドウ)~安東~テグ~慶州~ウルサン~釜山を訪れます。

韓国国内は朝鮮通信使の遺蹟、史跡は少ないですが、このプロジェクトは「続」、すなわち新しい日韓の交流プログラムですので、BankARTにいらして下さった、街づくりチームや新しく動き出した文化施設等を訪ねてみたいと思います。秋にはもう少しロングで、ソウル~釜山を西側周りでいく予定です。

### 속·조선통신사 2011 봄

작년 여름 주로 세토우치를 중심으로 돌아 본 「속·조선통신사」 제2탄. 올해의 봄 투어 (4.28~5.8) 는 부산의 조선통신사 박물관 개관 축하를 포함하여, 「속·조선통신사 연구회」의 멤버 10~15명이 서울 (인천, 경기도) ~안동~대구~경주~울산~부산을 방문합니다.

한국 국내에는 조선통신사의 유적, 사적은 적지만 이 프로젝트는 「속」, 즉 새로운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므로 BankART에 와 주셨던 거리 만들기 팀과, 새롭게 활동하기 시작한 문화 시설 등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가을에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 서울~부산을 서쪽으로 돌아 볼 예정입니다.

お問い合わせ:BankART 1929  
Tel:045-663-2812  
tongshinsa@bankart1929.com  
http://www.bankart1929.com

# 続・朝鮮通信使

横浜市が推進するアートをキーワードにした街づくり、「創造都市構想」の一翼を担うBankART1929が中心となり、2010年8月6日に日韓の新しい交流プロジェクト「続・朝鮮通信使」はスタートした。日韓のクルー(主にクリエイター)からなる約20名が、現代版の衣装(この旅のためにデザイナーがデザイン)を身にまとい、旗(これも様々なアーティストによる)を手に、二十数日間キャラバンを行なった。ソウルから釜山へ。釜山からは定期航路で対馬へ、そして博多へ。下関からは船をチャーターし、大阪まで14日間の船旅。船長、副船長とも横浜の人だ。愛知トリエンナーレを経て、BankARTの本拠地横浜へ。その後も、新潟県越後妻有まで脚をのびした。「瀬戸内国際芸術祭2010」に正式に関わっていたので、とりわけ2010年は瀬戸内海の都市に焦点を当てて、通信使ゆかりの都市を巡った。「続・朝鮮通信使」と名付けたように、当時滞りしなかった都市でも、このプロジェクトを理解し、受け入れてくれる都市には寄港し、新しい関係を築いていった。

私たちが「朝鮮通信使」に興味をもったひとつの理由は、日本と朝鮮半島という国家間の外交プログラムが、地方都市のホスピタリティのリレーで支えられていた点だ。各都市(各藩)が人的・文化的な財産を総動員し、独自の方法で異国の客人を迎え入れ、信(よしみ)を通(かわす)。このことは既に言及されているように、江戸時代中期以降は中央集権的な国家ではなく、地方自治の連合政権、都市の時代だったという史実を浮上させる。実際20日間ばかりの旅でも、「独自性のある豊かな街」の連鎖を垣間みることができた。4~5月、「BankARTスクール」で、京都から仲尾宏氏をお招きし、全8回のゼミを開催した。ゲストとして、北島万次氏、故・辛基秀の娘さんの辛美沙さんとお母さん等にもお越しいただいた。このゼミは、私たちの基礎知識を深めたことはいまでもないが、各都市を巡って強く感じたことは、先生方と関係者との通信(=よしみをかかわす)の深さだ。先生方の信頼関係が、私たちの旅程に多くの出会いと収穫をもたらしてくれた。

さてこのプロジェクト、一体どこまでいくのか? 2010年はリサーチも兼ねたイントロダクションだが、9年間は続けたい。2011年は主に韓国国内(ソウル~釜山~対馬)、2012年は東海道に焦点を当て、その翌年には再び規模をあげて瀬戸内海へと、スパイラル状に3年毎に10倍のスケールに上げていくことを計画している。9年後には、当時のスケール500人規模の招聘と4000人ともいわれるクルーを実現したい。もちろんハードルは数々ある。500人の選考方法、ソウル~横浜~妻有の宿泊などを受け入れてくれる都市との協働関係の構築、法的・感情的なハードルのクリアー、全体を支える経済の仕組み、等等。これらの課題を焦らないうで、じっくりと突破していきたい。そのためには強い意志を持ち続けることと、それを支えるきめ細やかな日々の活動(通信)をこれからも続け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 속·조선 통신사 2011

오코하마시가 추진하는 아트를 키워드로 한 거리만들기 '창조도시구상'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BankART1929가 중심이되어, 8월6일, 양국의 새로운 한일교류프로젝트 '속 조선통신사'는 시작되었다. 한일의 약 20명으로 구성된 선원(주로 크리에이터)이, 현대판 의상(이 여행을 위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입고, 깃발(이 또한 다양한 아티스트에 의하여 제작됨)을 손에 쥐고 20여일간의 캐러밴을 행하였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정기항로를 통해 대마도에, 그리고 하카타(博多)에. 시모노세키(下関)부터는 배를 빌려 오사카까지 14일간의 뱃여행. 선장도, 부산장도 오코하마시 사람이다.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를 거쳐, BankART1929의 본거지 오코하마에. 그 후, 니가타(新潟)의 에치고츠마리(越後妻有)에까지 발길을 뻗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瀬戸内国際芸術祭) 2010'에 정식으로 관련되어 있어, 특히 2010년 도에는 세토우치해(瀬戸内海)의 도시에 초점을 맞춰,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도시를 순방하였다. '속 조선통신사'라고 명명한 것처럼, 당시에는 체재하지 않았던 도시라 해도,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도시라면, 기항하고 새로이 관계를 구축해나갔다.

우리가 '조선통신사'에 흥미를 가지게 된 한가지 이유는, 일본과 한반도의 국가간 외교프로그램이, 지방도시의 호스피탈리티의 릴레이로 유지되어왔다는 점이다. 각 도시(각 번藩)가 인적, 문화적 재원을 총 동원해, 독자적 방법으로 이국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신용(우의)을 통통( 나누다) 함. 이는 이미 언급되어 온 것처럼, 에도시대 중엽 이후의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의 연합정권, 도시의 시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오르게 한다. 실제로 약 20일간의 짧은 여행에서도, '독자성 있는 풍요한 거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4~5월 BankART 스쿨'에서는 교토의 나카오히로시(仲尾宏) 씨를 초청하여, 전8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게스트로는 키타지마만지(北島万次) 씨, 고 신기수(辛基秀) 선생의 따님 신미사(辛美沙) 씨와 어머니 여러분등이 방문해주셨다. 이 세미나는 우리의 기초지식을 깊게 하였다는 사실은 말할것도 없을 뿐 더러, 각 도시를 순방하며 강하게 느낀 점은, 선생님들과 관계자와의 통신(우의를 나눔)의 깊이이다. 여러 선생님들과의 신뢰관계가 우리의 여정에 수 많은 만남과 수양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10년에는 리서치를 겸한 인트로덕션이었지만, 앞으로 9년간은 계속 해나가고 싶다. 2011년은 주로 한국 국내에서(서울~부산~대마도), 2012년은 도카이도(東海道)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해에는 또다시 규모를 넓혀 세토우치해(海)로, 나선형으로 매3년, 10배의 스케일로 높여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9년 후에는 조선통신사 당시 스케일인 500인의 규모를 초빙하고, 4000명 정도의 선원으로 실현케하고 싶다. 물론,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500인의 선고방법과 서울~오코하마~에치고츠마리간의 숙박시설 등, 받아들여줄 도시와의 협력관계의 구축, 법적 감성적인 문제들의 클리어, 전체를 뒷받침할 경제구조 등등. 이들 과제를 조바심내지않고, 차분하게 돌파해 나가려 한다. 이를 위하여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것,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치밀한 하루하루의 활동(통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A Contemporary Sequel for the Joseon - Korean diplomatic expeditions

The Tokugawa Shogunate invited about 500 diplomats and cultural figures from Korea over a 200 year-period during the Edo era. (1603-1868) Setouchi (Seto Inland Sea) was one of the principal halting sites during their sojourn in Japan. Starting out from Seoul, they visited Busan, Tsushima, Iki and Shimono-seki from where they sailed into the Setouchi. In what must have been a joyous occasion, they sailed into the calm waters of an inland sea after the turbulent waves encountered while crossing the Korean straits. In addition to the area's diverse flora and fauna, the delegation's members were delighted with the Daimyos' (territorial lords) hospitality and welcome wherever they docked. Setouchi was to become the nexus for these cross - cultural exchanges so mutually beneficial in terms of bilateral relationships.

We, at Team BankART Setouchi, in collaboration with the Setouchi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0 would like to develop this idea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what might be described as the contemporary equivalent of these Korean diplomatic and cultural expeditions. As in previous centuries, the journey begins in Seoul, before subsequently visiting those cities in the Setouchi area historically connected with the erstwhile missions. On each step of our journey, we will organise cultural communication programs. We would also like to broaden the focus of the original mission, by collaborating with other citie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even though they might not be historically connected.

For the period 2010-2013, we would like to put the project on a solid footing: for detailed research, exchange programmes, along with the creation of networks,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technical and logistical preparation. Ultimately, we would like to realise the project in 2019-- whereby we would gather about 500 people to retrace the steps in an enhanced contemporary sequel of the original Joseon expeditions.

For 2010, we would like to start from what is currently feasible. Over a twenty-day period members of the BankART1929 team, along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will retrace the journey taken by the earlier expeditions. This year's main subjects include the Flag, Music and Costume of both cultures. Initially we will concentrate on those locations historically connected with the earlier missions, and visit those islands hosting events for the Setouchi Inland Sea International Arts Festival.

For 2011, the research will be continued about the route between Osaka and Yokohama, followed by the one between Seoul and Busan for 2012. Then for 2013 we would like to organize the exchange of over 50 people. After we continue to do research for the extended area of Osaka to Kanto district in 2014 and for Seoul to Busan in 2015, for 2016 we would like to invite about 100 people of cultural figures and creators. After preparing for two years, eventually in 2019 we would like to realize the 500 people's exchange program.